

“광주 5·18서 印尼 민주화 투쟁의 길 영감 받았죠”

2020 광주인권상 수상 인도네시아 벵조 운동

1965년 17세 때 독재 맞서다 정치범으로 몰려 9년간 투옥·강제노역
석방 후 민간인 학살 사건 규명 투쟁... 집단 매장지 355곳 발굴
5·18 민주화운동에도 깊은 관심... 기록물 수집·자체 추모식 열기도

2020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도네시아 벵조 운동(Bedjo Untung·72)은 인도네시아 군사 독재 정권이 벌인 대규모 양민 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해온 활동가다.
5·18기념재단은 벵조가 수하르토 군사 정권에 맞섰던 투쟁이 5·18정신(민주·인권·평화)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벵조에게 광주 인권상을 수여했다. 벵조가 고등학생(17세)이었던 1965년, 인도네시아는 하지 모하마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사 독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수하르토 정부는 자신이 무너뜨린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측 지지자를 제거하고자 했다. 좌파 청산을 빌미로 벵조가 살던 마을의 교사, 농부, 어린이 등을 닦치는 대로 잡아갔다. 이때 벵조의 삼촌도 납치·살해당해 안매장됐다. 나중에서야 발견됐다. 벵조 또한 정치범으로 몰렸다. 자신이 보고 들

은 것을 주변에 얘기했다는 이유였다. 벵조는 비교적 안전한 대도시 자카르타로 도망쳐 길거리, 건물 계단, 슬럼가 등을 전전하며 살았으나, 1970년 군사정보국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후 벵조는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으며 9년 동안 투옥·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수감 생활은 '지옥' 같았다. 식량이 부족해 함께 수감됐던 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벵조는 쥐, 뱀, 고양이, 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목숨을 이어갔다.
벵조는 1979년 10월에야 석방됐다. 인도네시아의 반인권적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수하르토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은 탓이었다. 그 이후로도 벵조는 정치범 특수코드 'E'를 부여받고 매순간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았다.
석방 이후 벵조는 민주화·인권의 투사로 거듭났

고, 민간인 학살 사건을 밝히려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999년 YPKP65(인도네시아 대학살 연구소)를 설립했다. 1965~1966년 사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화교, 좌익 등으로 몰아 최소 50만명에서 300만명을 숨지게 한 대학살이 군부의 시나리오였다는 증거를 찾고자 만든 모임이었다.
이듬해 YPKP65는 조사단을 꾸려 자바 지역 중앙에 있는 원오소보에서 21구의 유골이 묻혀있는 집단 매장지를 밝혀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5곳의 집단 매장지를 찾아냈다.
벵조는 5·18 민주화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YPKP65에서는 5·18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물을 수집하고, 자체 추모식을 마련하기도 했다.
벵조는 1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5·18은 진실을 밝혀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동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나의 삶과 인권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당초 5·18 기념일인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0일로 연기됐다.



벵조 운동이 2018년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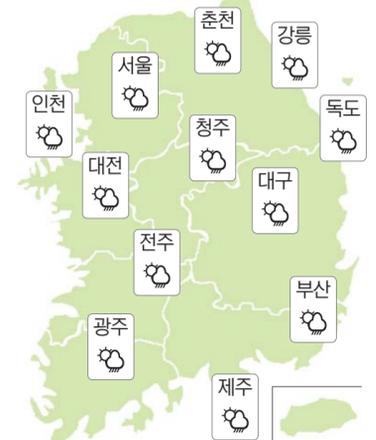
해돋이 05:26 달뜨기 03:17
해지기 19:32 달짐 15:21

5·18 영령 추모하는 비

차차흐려져 오후부터 비 오는 곳 있겠다.

지역	기상	시간
광주	흐려져비	18/25
목포	흐려져비	17/23
여수	흐려져비	17/21
나주	흐려져비	16/25
완도	흐려져비	17/22
구례	흐리고비	16/24
강진	흐리고비	17/22
해남	흐려져비	16/23
장성	흐려져비	15/25
보성	흐려져비	15/21
순천	흐리고비	17/22
영광	흐려져비	16/25
진도	흐려져비	16/23
전주	흐려져비	17/28
군산	흐려져비	15/27
남원	흐려져비	15/25
홍산도	흐려져비	14/18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지역	바다	파고 (m)	
		오전	오후
서해남부	앞바다	1.0~2.0	2.0~3.0
	먼바다(북)	2.0~3.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2.0~3.0	2.0~4.0
	먼바다(서)	1.0~1.5	2.0~3.0
	먼바다(동)	1.0~2.5	2.0~3.0
	먼바다(남)	1.0~2.5	2.0~4.0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4:38 17:09	11:32 ---
여수	00:13 12:46	06:40 18:58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관심	높음	좋음

◇주간 날씨

19(화)	20(수)	21(목)
☁	☁	☁
13/18	12/21	12/24
22(금)	23(토)	24(일)
☁	☁	☁
14/24	15/24	15/25

‘생과 死’ 치열했던 80년 5월 민주의료 현장

광주기독병원 ‘금희의 오월’ 사진전·헌혈 캠페인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홍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의료활동 사진전과 헌혈 캠페인을 가졌다. (사진) 광주기독병원은 ‘금희의 오월: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병원 제증역사관 입구에 5·18의료활동 사진전을 진행하며, 이에 앞서 15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주기독병원은 1980년 5월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민주의료 현장이다. 병원 의료진은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한꺼번에 밀려

든 부상자를 치료하느라 침식을 잊었으며,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민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한편 1980년 당시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헌혈을 호소하는 가두방송을 듣고 광주기독병원을 찾아 헌혈 후 귀가하던 박금희 열사의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상태로 광주기독병원에 후송됐다. 박금희 열사의 이야기는 다수의 예술 작품에 활용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용봉탑 봉황, 40년만에 되찾은 옛 모습

전남대학교 상징탑인 ‘용봉탑’ 봉황 조형물이 40여년만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다. (사진) 전남대는 지난 16일 정병석 총장과 교수, 학생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제작한 봉황 조형물을 용봉탑에 설치했다.
봉황 조형물은 용봉탑 꼭대기에 놓인 상으로, ‘용봉인들이 웅장한 뜻을 갖고 창경을 비상하는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됐으며, 가로 3.1m 세로 2.2m 높이 1.7m에 무게는 약 100kg이다. ‘모발’처럼 바람이 불면 방향을 바꾸며 돌아가고, 햇빛을 받으면 강한 반사광을 내도록 설계됐다.
1978년 준공된 용봉탑과 봉황 조형물은 42년 동안 보수한 적 없었다. 봉황 조형물 또한 오랜 세월을 버티며 날개 부분이 부서지고, 재질이 변색돼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복원 사업은 정병석 총장과 박정용 교수(미술학과)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용봉탑 원작자 최기원 교수(당시 흥익대 미술학과) 측 동의를 얻어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복원은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인 이형용씨가 맡



았으며, 원작과 똑같은 재질, 크기, 무게로 제작됐다. 원작 봉황은 전남대 박물관에 옮겨져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대동고 총동창회 전영진 5월 열사 추모식

광주대동고 총동창회(회장 이용표)가 14일 고(故) 전영진 열사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은 매월동 광주대동고 교정에 있는 전 열사 추모비 앞에서 진행됐다. 전 열사의 부친 전계량(전 5·18 유족회장) 씨를 비롯해 총동창회 임원, 전 열사 학창시절 동기인 강한우(6회)씨와 친구, 우에무라다카사 전 아사하신문기자, 정철원 교장 등이 참가했다.



전 열사는 1980년 5월 광주대동고 3학년이었다. 같은 달 20일 책방에 가던 중 계엄군에게 폭행당하고 이튿날 오후 2시께 급남로 옛 광주노동청 앞에서 오른쪽 머리에 총상을 입고 기독고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구제길(세종요양병원 이사장·광주시 동구체육회장)·장하영씨 장남 영진군, 송하백·김명옥씨 장녀 수현양=23일(토) 오전 11시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열두채울.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급호, 속식제공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가족 무료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통 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마루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 정신건강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약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고

- 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모집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주민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

- 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솔,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